

## 톱스타와 해외 셀럽의 룸스와핑!

### <내 방 안내서> 10월 5일(목) 밤 11시 10분 첫 방송

●  
현지인과 교감하는 로컬 여행의 매력

시사교양본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내 방 안내서>(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가 추석 연휴 중 첫 방송된다.

<내 방 안내서>는 한국의 톱스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외 셀럽과 방(혹은 집)을 바꿔 5일간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테마를 느끼고 그들의 철학과 생활 모습을 엿보는 'SWAP'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총 10부로 방송될 시즌 1에는 박신양, 헤민 스님, 손연재, 박나래가 출연하며, 이들과 방을 바꿀 해외 셀럽으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프란세스카 로피스, 네덜란드 재즈 트리오 제이지, 덴마크의 여대생이자 정치평론가 니키타 클래스트롭, LA의 유명 DJ 살람 렉과 힙합 아티스트 스쿱 데빌이 출연한다.

박신양과 방을 바꿀 프란세스카 로피스는 페인팅, 사진, 영화 제작,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페인의 대표적인 설치 미술가이다. 박신양은 따로 작업실을 마련할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 미술 활동에 전념해왔다. 박신양은 프란세스카의 단골 펍을 방문하고, 예술가 친구들을 만나는 등 프란세스카가 직접 짠 일정으로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다양하게 돌아본다.

다시 태어난다면 뮤지션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헤민 스님은 여성 재즈 트리오 제이지와 기꺼이 방을 바꾸고 네덜란드 뮤지션의 삶 속으로 뛰어든다.

LA의 유명 DJ 살람 렉과 힙합 아티스트 스쿱 데빌의 방으로 떠난 박나래는 살사 파티에 참석해 영혼을 불사르는 춤사위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SNS에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24세다운 고민을 갖고 있는 손연재는 동갑내기인 덴마크의 미녀 정치평론가 니키타 클래스트롭과 방을 바꾸고, 니키타가 짜준 일정으로 행복지수 세계 1위인 덴마크의 일상을 체험한다.

연출을 맡은 백시원 PD는 "손연재 씨는 덴마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이 정식 직원으로 쓰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박나래 씨는 여행의 목적은 썸 타는 것이라고 하더니 사교성이 좋아 주변에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헤민 스님은 스님의 사생활과 함께, 감춰 놓은 예술혼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신양은 두 달의 장고 끝에 출연을 결정해 10월 1일에 바르셀로나로 떠난다.

현지인과 교감하는 로컬 여행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내 방 안내서>는 10월 5일(목)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되며, 추후 정규 방송날짜가 정해진다.



## 추석 황금연휴도 SBS가 접수한다! 색다른 파일럿, 특집 풍성~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맞는 기쁨을 배가시킬 SBS의 추석 특집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SBS는 공들여 준비한 파일럿과 특집으로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 01 생활밀착형 리뷰 버라이어티 - 파일럿 <박스 라이프>

파일럿 <박스 라이프>는 연예인 리뷰단에게 의문의 낯선 물건이 담긴 '박스'가 배달되면, 리뷰단이 그 물건을 난생처음 사용해보면서 직접 후기 영상을 제작하는 리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리뷰단으로는 예능 대세 서장훈과 김숙을 비롯해서 국민배우 주현, 테니스 여제 전미라, 전소미의 동생 에블린이 활동한다. 서장훈, 김숙은 진행을 겸한다.

빈말을 못하는 솔직담백한 성격의 서장훈은 분석적이고 예리한 성격을 리뷰에 적극 활용한다. 탐구 정신과 모험심이 강한 김숙 역시 어떤 리뷰를 쓸지 기대가 된다. 50년간 연기 외길만 걸은 주현은 <박스 라이프>로 예능에 처음 발을 내디디며, 윤종신의 아내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전미라는 엄마들의 대표 주자로 간간히 리뷰에 나선다. 떡잎부터 다른 외모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에블린은 여덟 살다운 깜찍한 상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의식 PD는 "단순한 체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변화하는 일상과 삶까지도 들여다 보고 싶다"고 밝혔다.

생생한 체험과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스 라이프>는 10월 9일(월) 오후 5시 50분부터 8시까지 1, 2부로 방송된다.



### 02 남진·이영자가 안내하는 여행 - 특집 <트래블 메이커>



추석 특집 <트래블 메이커>는 스타가 여행 가이드가 되어 본인이 직접 짠 여행 코스로 일반인 여행객을 모시고 떠나는 주객전도 여행 리얼 버라이어티다.

데뷔 54년 차 국민 가수 남진과 대한민국 대표 여성 MC 이영자가 가이드로 나서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코스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휴머니티 여행을 기획한다.

최고령 가이드 꿈나무가 된 남진을 위해서 god 김태우, 애프터스쿨 리지, 인디밴드 소란이 합류하며, 봄은 이영자를 지원한다.

남진은 7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행 내내 센스 넘치는 입담과 흥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영자 역시 '먹방계의 대모' 등 뽐난 수식어에서 벗어나 품격 있는 먹방과 차원이 다른 여행 코스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10월 3일(화) 오후 5시 50분부터 8시까지 130분간 2부작으로 방송된다.

### 03 <생투> MC들이 직접 검증에 나섰다! - 특집 <고수면>



<생방송 투데이>의 인기 코너인 '고수면'이 10월 2일(월) 오후 6시 45분부터 8시까지 추석 특집 <고수면-전설을 말하다>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집 <고수면>은 그동안 다채로운 음식과 함께 요리인의 인생 스토리까지 담은 '고수면'을 음식별, 기술별로 총 정리하는 한편, <생방송 투데이>의 전·현직 MC를

맛 검증단, 기술 체험단으로 현장에 투입해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최영아, 김선재, 윤현진 아나운서는 직접 고수의 손맛을 검증하러 나섰고, 김환 아나운서는 고수의 기술을 배워본다. 한편, '고수로드-New 고수가 떴다!' 코너에서는 최강 고수를 지도 형식으로 정리한 후 후속 취재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수를 등장시켜 특집에 걸맞은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 04 모비딕을 TV로 본다 - <양세형의 쏘터뷰>, <워너시티>



10월 3일(화) ~ 10월 5일(목) 저녁 8시 35분에는 <모비딕 스페셜 양세형의 쏘터뷰>가 방송된다. 최근 <미운 우리 새끼>에서 '궁서리'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상민, <너는 내 운명>에서 달달한 신혼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추자현, 그리고 새 영화로 돌아온 마동석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세형이 이상민에게 재무설계에 대해 묻고, 추자현과는 눈빛 인터뷰를 하는 등 출연자별 개성 넘치는 인터뷰가 펼쳐질 예정이다. TV에서 선보이는 전체 분량이 온라인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있는 워너원 단독 예능도 지상파 최초로 공개된다. 10월 6일(금) 밤 12시 20분에 방송되는 <모비딕 스페셜 워너시티>는 대세 아이돌 워너원이 예능 파라다이스 '워너시티'에서 각종 게임 트레이닝을 통해 준비된 예능돌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는다. 흔치 않은 워너원 완전체 출연 예능으로 이미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오직 TV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미공개 분량이 포함된다.

# ‘듣도 보도 못한’ 차원이 다른 신개념 심리 게임쇼 <마스터키>

역대급 라인업으로 온라인 들썩! 10월 14일 첫 방송

예능본부가 준비한 <마스터키>(연출: 임형택)가 10월 14일(토) 첫 방송된다. <마스터키>는 최정상 인기 스타들이 플레이어가 되어 게임에 참여하면서 ‘마스터키’를 가진 자들을 찾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는 신개념 심리 게임쇼다. 이수근, 전현무, 김종민, 헨리, EXO 백현, 워너원의 강다니엘과 웅성우, 조보아, B1A4 진영, 아스트로 차은우, 박성광, 강한나 등 대세 연예인들이 총출동한다는 소식에 방송 전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스터키>의 또 다른 특징은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시청자가 참여한 내용을 반영해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왓처(Watcher)가 되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12명의 스타 플레이어 중 ‘최애 캐릭터’를 뽑는 첫 번째 투표가 진행되자 온라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신들이 응원하는 플레이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각 팬덤들의 게시물도 온라인상에 급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플레이어에게는 게임을 할 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며, 우승 플레이어를 선택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한편, 트위터코리아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9월 4주차 ‘트위터 화제의 키워드’에 따르면, <마스터키>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첫 방송 전부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 2017년 도랑 살리기 협약식



9월 20일(수) 충남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일대마을)에서 환경부와 SBS가 주최하는 ‘2017 도랑 살리기 협약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안희정 충남도지사, 복기왕 아산시장 등 8개 지자체장과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장, 일대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박정훈 SBS 사장은 축사를 통해 <물은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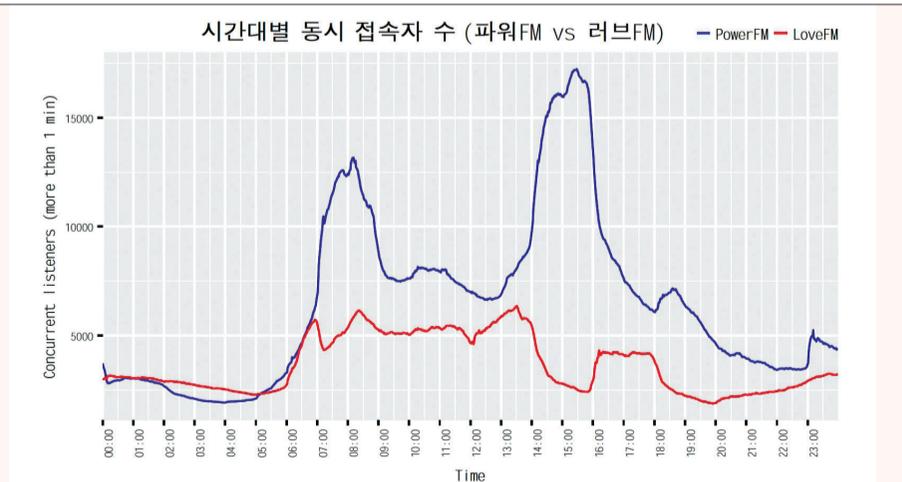
경이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환경부, 각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SBS가 앞으로도 도랑 살리기를 비롯해 소중한 물 환경을 지키는 데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2011년부터 환경부와 SBS가 함께 시작, 그동안 234개 마을 도랑을 살리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55개 마을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방송되고 있는 장수 환경 프로그램 <물은 생명이다>(매주 일 06:10 방송)에서는 그동안 각 기관과 함께 안양천 살리기,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건강한 물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최원석 보도국장 한국참언론인상 수상

최원석 보도국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참언론인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참언론인상은 언론인의 사명을 통해 국민의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한국언론인연합회는 2001년 전국 신문·방송·통신 등 50개 언론사 소속 전·현직 종근 언론인들이 ‘언론이바로 서야나라가바로 선다’는 취지로 설립한 단체다.

### 그것이 궁금하다? 고릴라 앱을 들여다보면 청취자 동향이 보인다 ①

어제 SBS 라디오를 청취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어제 청취한 사람이 오늘도 가장 많이 다시 듣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김영철의 파워FM>은 몇 부에 가장 많은 청취자들이 몰릴까? 어제 초대된 게스트에 대한 청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러브FM은 이번 가을 개편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을까? 라디오 PD들이라면 늘 궁금해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기가 힘들었던 질문이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용해 여기에 대한 답을 즉시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인프라팀에서는 라디오센터와 협업을 통해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고릴라(Gorealra) 앱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을 개발했다. 현재 고릴라 로그 데이터에는 하루에 수백만 건에 달하는 청취자들의 실시간 청취 이력이 생성된다. 이를 빅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자료를 지난 8월부터 라디오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고릴라 앱을 통해 라디오를 듣는 사람은 전체 청취자의 10% 수준이고 타사 프로그램은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샘플링이 아닌 전수조사이고, 청취자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분 단위로 청취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나이, 성별, 직업



등 청취자 개개의 정보와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은 라디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기술인프라팀 이경렬 매니저는 “매일 100만 명이상이 청취하는 SBS 라디오에서 그간 정기적인 청취율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항목과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이용 행위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든든한 도구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편에는 라디오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한 번의 방송사고나 다섯 개의 알로니시계 - 아나운서팀 이인권



2016년 12월 19일 오전 6시 55분.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한 날입니다. <모닝 와이드>에서 '굿 모닝 연예' 코너를 고정으로 진행하게 된 그 날 그 시간, 베트남에 계시는 아버지는 2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어머니는 방송을 하려면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며 새벽 4시에 갈비찜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첫 방송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방송에 대한 아버지의 부담스러운 피드백과 어머니의 고기반찬은 이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두 분은 더 이상 저의 방송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새로 들어가는 거 없냐?"라는 메시지만 보내시고, 어머니는 "출근할 때 조용히 씻어라"라고 경고하신 이후로 내다보지 않고 주무십니다. 물론 아침은 이제 제가 알아서 찾아서 먹습니다. 아들에 대한 관심이 식은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아들이 걱정되지 않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변화와 함께 저는 점차 회사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순조롭게 회사에 적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7월 6일, 전날 감기약을 과다 복용하고 잤는지 일어나 보니 6시 50분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제가 켜는지, 듣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방송에 늦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피디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디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괜찮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와요"라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출근해서 사죄를 하고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제 최악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끝내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네가 해야 시원시원하게 어울리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됐고, 감사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혼자자 아닌 SBS의 일원으로 일한다는 것을 느꼈고, 회사 선배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제 방에서는 다섯 개의 알로니시계가 새벽 4시 반부터 1분 간격으로 알람을 울려댁니다. 입사한 지 이제 8개월, 무언가 멋진 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멋지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저의 솔직한 소감은 감사함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첫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어색하고 풋풋하다 못해 채 머물지 못하고 '뺨은' 저를 뺨아준 회사에 감사했습니다. 또, 저의 뺨은 모습을 배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선배님들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제 입사 첫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고마워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 아나운서팀 주시은



지금도 라디오 뉴스를 할 때면 긴장이 됩니다. On Air에 불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침도 잘 안 넘어가고, 갑자기 기침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불이 들어오고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를 하고 나면 진정이 되면서 뉴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일에 하나씩 적응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매일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해보다는 달이 더 익숙한 시간입니다. 오전 6시 50분, <모닝 와이드> '생생 지구촌'의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지면 활기차게 인사하며 제 코너의 문을 엽니다. 4~5분가량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시청자분들도 즐겁고, 웃음이 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개인 SNS로 "아침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저의 노력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기쁘고, 더욱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에 목소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발랄함을 표현하기 위해 가끔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감칠맛을 더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열린 TV 시청자세상>에서 시청자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며 늘 칭찬해주시는 좋은 선배님들, '엄지 척' 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최근에는 아나운서 선배님들과 함께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언젠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날도 오겠죠?) '익명 방송'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팟캐스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저의 한마디가, 저의 표정 하나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뿌듯하고,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아나운서를 꿈꾸던 시기, 간절했던 그 시간을 떠올립니다. 입사 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었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했다!'하고 칭찬해주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일이 늘어가는 요즘,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또 보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부는 겨울에 들어와 따스한 봄을 보내고 정말 뜨거웠던, 끝이 있을까 싶었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처음 맞이했던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내일이 기대됩니다. SBS 신입 아나운서 주시은이었습니다.



# '정.알.못'이여 <정봉주의 정치쇼>로 오라!

## <정봉주의 정치쇼>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금 오전 10:05~12:00 / 토 오전 11:00~12:00

2016년 촛불 집회의 누적 참가 인원이 1,600만 명이란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터부시하는 분위기는 깨졌는지도 모르겠다. 사방이 정치 이야기인데, 나는 여전히 정치를 잘 모르겠다고? 그렇다면 SBS 러브FM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자.

<정치쇼>의 모토는 "더 쉽게, 더 재미있게!"다. 실제로 DJ 정봉주(이하 봉도사)는 방송 중에 수차례 외친다. "아유,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더 쉽게 설명해보세요!" '정.알.못(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 앞에 놓인 문턱이 확 낮아지는 순간이다. '정.알.못'을 정치 고수로 만들어드린다는 봉도사의 외침이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냐.

우리 제작진은 어떤 사안을 다룰 때든, 청취자의 배경 지식이 0인 상태를 가정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고자 한다. 방송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정.알.못'의 잘못이 아니라, '정.알.못'이 못 알아듣게 연출하고 구성한 우리 제작진의 잘못이다. 방송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도리어 따끔하게 혼내

는 문자를 보내 달라.(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비용이 발생하긴 한다) 그럼 또 우리의 봉도사는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고 외칠 것이다. 봉도사의 입담에 유쾌하게 웃으며 귀만 우리에게 맡겨주면 된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적셔드리겠다.

9월 개편으로 방송 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시사프로그램으로선 이례적으로 음악도 틀기 시작했다. 정치와 웃음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정치와 음악이 만나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30~50대 청취자들이 기억 저편에 미뤄두었음직한 음악을 선곡하는데, 이 역시도 청취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방송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됐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민이 정치를 알아야 정치가 시민의 눈치를 본다. 그때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제작진은 웃음과 음악을 버무린 정치 쇼를 준비한다. 마성의 중독성, 70억분의 1의 사나이 봉도사가 진행하는 <정봉주의 정치쇼>다.

- 조연출 김서연 PD(라디오센터 라디오1CP 소속)

